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기도

벤 패터슨/ 미국 웨트몬트대학 교목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군인은 자신을 향해오는 총알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적군에게 “내가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까?”라고 묻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는 그것을 예상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적사와 귀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엡 6:12)라고 편지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인들이 하나님나라의 일은 곧 싸움과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했다. 그 싸움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리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기도는 영적 전쟁의 중심축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핵심 명령 가운데 하나다. 기도는 우리 싸움의 중심에 있다. 물론 기도만이 우리가 할 전부는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이 훌륭하고 중요한 사역 역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바퀴의 살을 이룬다면, 기도는 그 바퀴의 중심축이 된다. 중심축이 약해지면, 바퀴의 나머지들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셨다. 첫 번째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잘 한 후에, 나가서 나머지 일들도 하게 하셨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3:14-15). 하나님나라의 모든 일은 기도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교회를 재조직하고 구제사역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구제사역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기도가 교회의 중심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언젠가 과부와 고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문제의 뿌리로 나아가게 한다

영적 싸움터에서 교전중인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문제의 표면에만 닿을 뿐이지만, 기도는 그 근본 뿌리까지 나아간다. 예수님께서서는 절망적인 과부와 무정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기도하도록 격려했다. 과부는 자신을 괴롭히는 무자비한 압제자에 대항하기 위해, 재판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관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놀라운 결말로 마친다. 과부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결국 재판관의 도움을 얻게 된다. 승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기도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의 표층 밑으로 깊이 들어가 사탄을 뿌리째 뽑고 현 상황을 뒤집는다. 역사와 미래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에 진짜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위험인물’들이며, 영적 게릴라들이고, 자신들의 무릎으로 천국과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다.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아주 초창기부터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건축자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한다면, 기도 없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며, 완전히 헛된 것이다.

기도 없이는 허공을 칠 수밖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없는 동안 제자들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년은 주기적으로 악령에 의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악해져 가고 있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 오라”(막 9:19). -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의 교회를 보실 때마다 그 분이 느끼시는 감정일 것이다. - 그리고 그분은 소년을 고쳐주셨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했다. 그들은 ‘기도 없이’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교회들도 기도 없이 달려갈 수 있다. 모든 교파, 모든 교회들이 기도 없이 달릴 수 있다. 하지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과연 ‘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지옥의 문을 습격할 임무를 주셨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께서서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시면 말씀하셨던 ‘이런 유’들로 가득하다. 악한 어둠은 1세기만큼 굳건한 참호를 두르고 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위원회 혹은 교회가 발표하는 어떤 결의문이 이것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

기도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천국 보좌에서의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향로에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섞여져 있다. 이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의 불과 합해져 땅으로 쏟아진다. 그 결과, 땅에서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계 8:5).

자, 이번에는 기도회에 모여 있는 세상의 성도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의 기도 경험이 나와 비슷하다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다고 종종 느꼈을 것이다.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역전된 천둥소리(Reversed Thunder)”라고 했던 그 무한한 능력의 느낌,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이런 느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피조물이 성도의 기도 에 의해 흔들린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고를 잘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 2:1-2) 교회의 우선순위에는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목사인 에바브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골 4:12).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골4:13). 그들과 멀리 떨어져있던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 무엇으로 열심히 수고하였는가? 그는 기도로써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 기도는 단순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이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한다. 이에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 절에 한 위대한 말씀이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흡수하여, 그분을 닮는 데까지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미루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마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명확한 응답이나 해결 없이,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 수년 간 기도를 한다. 나 역시 그런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보면 어느새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곤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 말이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임재를 발견한다. 우리가 얻기 위해 기도하던 것들보다 종종 기도 그 자체가 더 위대하다.

우리 힘에 부칠 때

D. L. 무디는 설교하는 법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물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와 신학자, 교수들을 경계하라.

나는 최근에 내가 가장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날 아침 교회당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내 머리는 그곳에서의 많은 기억들로 가득 찼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들이었다.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나는,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나 말들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고, 내 안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나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다: “그때는 정말 부족했고, 힘에 부쳤습니다. 그럴죠? 주님께서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대답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힘에 부치지 않는 것이냐?” 나무라시는 듯한 주님의 그 말씀에서 나는 그분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힘에 부치고 약하다. 당신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이다. 그것은 문제의 표층 밑으로 깊이 들어가 사탄을 뿌리째 뽑고 현 상황을 뒤집는다.

- 벤 페터슨/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웨스트몬트대학의 교목(campus pastor).
'Deepening Your Conversation With God'(*'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저자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1월호(통권161호) 58-61
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 목회와 신학 홈페이지 - <http://www.durano.com/moksin>